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정 은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이 되고, 소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언어가 된다. 굳이 어떤 연구 결과나 임상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유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사실들이 어느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되기도 하였다. 간단한 예로 수화(혹은 수어)를 단순한 몸짓으로 생각하였던 시대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연구의 결과로, 수화는 인간의 정식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음성언어(구화)보다 먼저 발생된, 우리가 통칭하는 언어라는 것의 근본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점자나 수화 서비스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점자나 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장애인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점자나 수화 사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있었으며, 더불어 다양한 언어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가지각색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

이나 언어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혹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야 하니까, 아니면 여전히 빨리 ‘정상인’처럼 잘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등등…….

언어는 인간들 ‘사이’에서 존재할 때만 더 이상 ‘소리’가 아닌 의미를 가진 ‘인간의 언어’가 된다고 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일지도 모르는 이 사실을 굳이 반복하는 이유는 비단 장애인 언어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차원에서 오고 가는 언어가, 아직도 대개의 경우 그저 소리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지나친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지나친 우려일까? 예컨대 사람들 사이의 소통 수단(예: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들은 다양해졌지만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언어 및 청각 장애 복지관을 통한 각종 정보 서비스나 언어 치료 같은 복지관 중심의 언어 복지 정책 혹은 특수교육 범주 속에서 진행되는 장애아 언어교육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타인과의 소통도 가능하다는 관념 아래 무수히 많은 장애 아동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사춘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일상과 단절된 채 ‘말 배우기’에 여념이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물론 그 덕분에 언어 능력이 향상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스스로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아이들도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 치료의 보편적인 과정은 역으로 말을 배우는 데 골몰하느라 정작 다른 사람들과 말을 나눌 기회를 점점 더 줄이는 현실을 낳는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많은 장애 아동들의 경우 언어 치료를 통해 할 줄 아는 말은 많아지지만 커 갈수록 오히려 전보다 표정은 어두워지고 타인과 말하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듯 장애 아동들의 언어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바람에 일반인들 역시 장애인들과 접할 기회, 이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간다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

의 이중적인 면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배워야’ 의사소통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역이다. 인간은 의사소통적 관계를 통해 언어를 발달시켜 나가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따라 언어 능력 자체도 발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빗대어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선후 관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언어 복지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1. 인간과 언어

인간(아기)은 다른 인간(부모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언어 자극을 통해서만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습득의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보다도 언어 경험을 포함한 구체적 삶의 경험이다. 즉 타인과의 일상적인 섞임 없이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적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때의 언어 자극은 어떤 언어이든 상관이 없다. 보통은 모국어이지만 외국어라도 되는 것이고(예를 들어 부모는 한국인이지만 외국 생활 중 아기가 태어난 경우 아기는 외국어를 먼저 접할 수도 있다.) 구화가 아니라 수화라도 상관이 없다. 즉 어떠한 언어이든 언어적 자극 자체가 인간(유아)의 지력 형성에 기여하며 미미한 자극일지라도 인간은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적 언어능력을 발현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구·관찰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는 생후 2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이다. 예를 들어 돌 이전까지 별다른 특이점 없이 자란 유아라 하더라도 이 시기(20개월~36개월)에 주어져야 할 언어적 자극이 결핍되면 언어 지체와 같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기도 한다. 비디오 증후군 혹은 유사 자폐증으로 불리는 증상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1. 소외 환경하의 언어 발달: 카스퍼 하우스(Kasper Hauser)와 지니(Genie)의 경우

1828년 5월 28일 독일 뉘른베르크 한 거리에서 카스퍼 하우스(Kasper Hauser)라는 사람이 발견되었다. 당시 카스퍼는 16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고 그의 손에는 그의 개인사를 알려주는 한 장의 편지가 쥐여 있었다. 알려진 바로는 그가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느 가난한 미망인에게 보내졌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그의 양부가 그를 창고에 가두어 키웠다는 사실이다. 카스퍼는 그 창고 안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얹은 채 묶인 상태로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 속에 성장했다. 카스퍼 하우스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몇 편 있는데 동일하게 그려진 그의 모습은 아주 아기 때부터 사춘기 나이에 이르도록 어두운 창고 안 기둥 옆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바퀴가 달린 장난감 목각 말 인형을 하염없이 앞뒤로 굴리고 있는 장면이다. 그가 옷을 갈아입거나 씻어야 될 때 그를 지켰던 창고지기는 카스퍼가 먹어야 할 음료에 아편을 섞었다. 즉 그가 잠든 틈을 이용해 창고지기는 그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다. 이렇게 자란 카스퍼가 1828년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언어 발달은 3세 정도의 수준이었다(Sacks, 1997: 84-87).

반면 1970년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지니(Genie)는 카스퍼와 마찬가지로 유아기부터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성장했지만 그녀의 언어 발달은 카스퍼의 경우와 또 달랐다. 현대판 야생 소녀라 할 수 있는 지니는 정신 질환을 앓는 아버지에게 의해 생후 20개월부터 집 안에 갇혀 지냈는데 그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언어 자극이 없었다. 세상으로 나온 후 지니는 집중적인 언어 교육을 받았으나 극히 제한된 단어들만 습득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친밀한 대상들을 뜻하는 몇 개의 기호(즉 명칭)들만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문법 역시 매우 뒤진 수준에 머물렀다(Sacks, 1997: 162).

카스퍼와 지니의 사례는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단절된 소외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뚜렷이 보여준다. 언어 발달의 적절한(혹은 결정적인) 시기에 타인으로부터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외적 발달 상황은 인간의 선천적인 언어 잠재력을 일깨우지 못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결정적 시기에는 아무리 미미한 언어적 자극이라 할지라도 유아의 언어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각기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결과들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울러 어린 시절의 정서적 안정감은 추측건대 사춘기 이후에도 언어 습득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Sacks, 1997 참고). 그만큼 언어 발달에는 정서적 요소가 크게 관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이한 요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았다든지(방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은 경험들은 언어 발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세상과 나의 관계 및 세상 속의 여러 관계들을 상징하고 인지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언어 행위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세상에 대해 또 타인에 대해 친밀하고 긴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의 언어 발달 과정은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강조하건대 인간은 누구나 언어 형성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감, 즉 세상과 또 타인과 관계할 만하다는 따뜻한 느낌이 유아에게 주어져야 하며 더불어 결정적인 시기에 적당한 언어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1.2. 유아의 언어적 잠재력

많은 분야에서 그러하겠지만 영유아와 관련된 영역의 여러 연구 결과들 역시 과학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그 내용이 개정되고 있다.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쉽게 단정 지어졌던 혹은 추측성 기사로만 머물렀던 이들에 관한 내용들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광토포그래피라는 최신 기법 또한 이러한 변화에 일조하고 있는데 이 기법은 고차적인 뇌 기능 영상을 얻기 위해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이다(Koizumi, 2009). 엠아르아이(MRI)로는 알 수 없었던 뇌 기능을 광토포그래피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 뇌의 가소성과 관련된 짧은 예를 하나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태내 사고로 인해 또래에 비해 피질이 아주 작게 태어난 1세 된 한 아기가 있었다. 병원은 엠아르아이(MRI) 자료를 근거로 아기의 눈과 귀가 멀었다고 진단했고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차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번에는 광토포그래피를 통해 아기를 검사하였다. 그런데 시각에 자극을 주자 남은 피질 부위가 활성화되었다(Koguer et al., 1997). 영아의 뇌 가소성을 입증하는 예는 이뿐만 아니다. “내섬유막이 거의 대부분 손상되었음에도 움직이고, 좌반구가 심하게 손상되었음에도 말을 하며, 소뇌가 거의 없어도 복잡한 동작을 했다.”(Koizumi, 2000)

인간은 엄청난 (잠재적)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나며 출생 후에는 환경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기능들을 갖추어나간다. 즉 인간의 신경계는 태생적으로 그 기능이, 선천적으로 혹은 개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신경이 서로 연결되거나 소멸되는 등 대단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발달 환경에 따라 어떤 기능이 유지되거나 발달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소멸돼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위 비디오 증후군(유사자폐증으로 불리기도 한다)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가타오카 나오키(2001)에 의하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언어 지체가 부쩍 늘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들은 운동 기능에 있어서나 지능적으로 특별

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일도 없다. 이 아동들은 또한 부모와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타오카 나오키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소통 과정에 있어 철저히 일방적인 텔레비전, 비디오 아울러 컴퓨터와 같은 현대 사회의 정보 매개물을 지목한다. 사람에게서 말을 배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 행위를 하면서 언어 발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위에 언급한 일방적인 정보 매개물에 아동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면 아동은 당연히 소통적인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아동의 발달 환경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에 상당히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즉 예전과 달리 이들의 부모는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에 늘 생활이 노출되어 있었던 새로운 (텔레비전)세대인 것이다.

엄마 대신 비디오가 아기를 돌봐주니(유아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볼 때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두 잘 알 것이다!) 양육 기간 중에 여유도 많이 생기고 게다가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선전하는 비디오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아이를 양육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우리는 부모와 눈을 맞추려하지 않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조용하고 말귀도 제법 알아듣는 것 같아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몇 개월을 혹은 일 년을 보낸 후 아이가 스스로 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혹은 그래도 교육적으로 잘 만들어진 비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가타오카 나오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자극 혹은 정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류의 비디오 또한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해하며 언어 지체라는 결과에 있어서 똑같다. 쉽게 말해 비디오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게 질문해 보라. 그는 답하는가? 바로 이 차이이다.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기의 표현에 반응할 수 있지만 아무리 웃는 얼굴로 따

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일지라도 화면 속의 그 사람은 아기에게 반응할 수 없다.(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결과(Bronson & Merryman, 2009: 270-275 참고)에 의하면 아이들이 비디오를 많이 볼수록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아이가 일방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부모)과 소통적 접촉을 하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창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를 놓쳐 버릴 수 있으며 이는 간혹 심각한 애착 장애로까지 연결되곤 한다.

나 또한 개인적으로 최근 십여 년 동안 이에 해당하는 언어 지체 아동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은 서두에서 강조했던 내용, 즉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선후 관계와 관련이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아동들이 대부분의 경우, 언어 이해 능력은 또래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 혹은 신체적 특이점이 없는 이 아동들은 그들의 소통적 표현에 대해 환경(타인)이 적절하게 반응해 주지 않아 언어 능력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경우로, 자신이 파편적으로 인지한 세상의 상징들을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사물 혹은 상황과 관계 짓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아동이 언어 치료라는 보편적인 장애인 언어 복지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로를 거친다.-과연 어떻게 될까? 앞서 소개한 비디오 증후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타오카 나오키는 이런 아동이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속에서 언어가 표현과 소통의 수단임을 (재)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어떤 언어 프로그램을 이런 아이에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유아 시기 아동에게 충족되어야 할 타인(특히 부모와 같은 가족 구성원)과의 언어적 접촉이 결핍되어 언어 지체가 나타났는데 이를-아무리 훌륭한 언어 교사라 하더라도-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전문가들이 채워줄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언어 복지는 과연 특별한 언어 교육(혹은 치료)

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거는 사람’인가?

2. 사람과 말

우리 인간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어떤 천재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서술해 내지는 못하는 것, 서투른 외국어 실력이라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 내지는 못하지만 상대가 말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신경심리학자 올리버 섉스(Oliver Sacks)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여 뇌염 후유증 환자들의 재생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영화 “Awakenings”(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나 세계적인 패션잡지 엘르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의 실화에 토대한 영화 “잠수종과 나비”를 보면 이러한 표현, 이해의 간극이 얼마나 왜곡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지가 밀도 있게 드러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동작 상상, 언어 경청, 단어 생성(상상으로), 음악 감상, 작업 기억 과제 같은 뇌 기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과제에 대해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Haida et al., 2000).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비록 못사람들처럼 소리 내어 언어를 구사하거나 상대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경청하는 일일 것이다.

2.1. 베이비 사인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 사이는 아기가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직 말이 따라가지 못하는 힘겨운 시간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Acredolo, L. & Goodwyn, S., 2004) 이 기간에도 부모와 아기는 베이비 사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베이비 사인이란 아기가 아직 음성언어에 숙달되기 전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 언어를 뜻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몸짓 사인이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나름의 표현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베이비 사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의 아기를 포함하여 서로 전혀 접촉이 없는 아기들인데도 이들이 표현하는 몸짓이 어느 정도 공통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즉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베이비 사인)였던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베이비 사인을 통해 아기와 부모가 서로 소통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관찰해 보았는데 결과는 전자와 같이 성장한 아기들이 이후 음성언어 발달도 빠르고 지능도 더 높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베이비 사인의 활용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보통의 경우에 마땅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서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음성언어 사용 이전의 아기들과의 의사소통이 베이비 사인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모 혹은 주위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친밀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험에 참가한 부모의 말처럼 아기가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모 자신도 모르게 더 자주 아기에게 말을 걸게 되고 아기의 사소한 표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리고 세계와 의사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더 높아진 아기는 당연히 또래 집단에 비해 음성언어도 더 빨리

익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위 환경과의 생산적인 접촉이 많아지면서 지능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음성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운 시기의 아기들과 부모가 수화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사회적으로 마련된다면 어떨까?(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수화로 언어를 습득하는 청각 장애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가 음성언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일정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습득하는 어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연구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을 넘어선 언어 복지 내지 교육 정책에 속할 것이지만 장애인 언어 따로 있고 일반인 언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도 한번쯤 심각하게 고려해 볼 일 아닐까 생각된다.

2.2. 의사소통은 쌍방通行

인간의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Trevarthen & Aitken, 1994). 임신 5~8주 정도부터 태아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형성되는 소통 체계를 전문 용어로 '선천적으로 내재된 동기 체계(Intrinsic Motive Formation, IMF)'라고 한다. 즉 외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만족될 경우에만 태아는 출생 때까지 배 속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고 출생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이 아주 처음부터 철저히 사회적임을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단순한 생물적 생존이란 불가한 것이다. 비슷한 연구 결과로 들 수 있는 또 하나는 프랑스 심리학자 스피츠(R. Spitz)에 의한 것이다. 그는 세계대전 당시 많은 전쟁고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소수의 보육인에 의해 집단적으로 양육되는 상황에 있

있던 많은 아기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었다. 문제는 스किन십이었다. 수적으로 아기들은 많고 보육하는 이들은 적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처럼 아기들을 안거나 달래줄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아기들의 표현에 제대로 반응해 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육 상황이지만 적절한 애정적 반응을 해 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조기 사망과 같은 결핍 상태를 전문 용어로는 ‘마라스무스(marasmus)’라고 부른다.

의사소통이란 언제나 쌍방 통행이고 그 핵심은 상대의 반응적 표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마루에서 노는 아기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혹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앞에서 한참이 지난 뒤에 그의 감정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상대는 어떤 기분일까? 아마 그는 이미 그 만남에서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쉽게 언어장애인 혹은 의사소통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기준들에 의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특별하게 교육하거나 치료하고자 한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러한 보완적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지금처럼 다민족(혹은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가 단위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언어장애인 혹은 의사소통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인’이기(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지만 이들이 내국인일 때, 이들은 언어장애인 혹은 의사소통 장애인이 된다. 왜 그럴까?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글 교육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같은 처지 내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물론 사회는 여기에 대해 갖가지 소소한 문제점들을 이들 간의 차이로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만약 어느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 출신 며느리를 한국어 교육만 따로 시키고 그녀가 자리한 일상 속에 못 섞이게 방치한다면 아마 대대적으로 비난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나는 장애인 언어 복지의 중심은 결코 언어 치료나 특별한 언어 교육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어 교육 혹은 언어 치료와 일상적 언어 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전자는 교육 혹은 치료 대상자가 익혀야 할 내용 중심으로 대화가 오가는 한편 후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일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전자는 말이 아니라 소리의 교환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2.3. 시청각 장애인의 접촉 수화

헬렌 켈러(Helen Keller)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 많은 이들은 그녀를 어려서 위인전집 같은 것에 꼭 포함되어 있던 훌륭한 사람,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다. 그런데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헬렌 켈러의 삶은 정말 기적이었던 것일까? 그녀에 버금가는 멋진 삶을 살아낸 또 다른 시청각 장애인들은 없었을까? 사실 많이 있었다. 이들은 메쉬차야코프-실험(Mescerjakov-Expeirment) 혹은 자고르스크-실험(Zagorsk-Experiment)으로 알려진 구소련(소비에트)의 시청각 장애인 교육의 성과였다.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아래의 내용은 Mescerjakov, 2001 참고).

먼저 이 교육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동등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 즉 접촉수화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다. 접촉수화란 글자 그대로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수화 형식의 언어이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

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에게 촉각은 특별한 의미이며 언어 역시 이를 감안한 형식이어야만 한다(최근 중도에 청력 손상을 입게 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가락점자도 소개되었다.(후쿠시마 사토시, 1999) 참고).

소비에트 시청각 장애인 교육의 시작점은 이반 소콜얀스키(Ivan Sokoljanski: 1889-1960)라는 사람과 관련이 깊다. 메쉬차야코프(Mescerjakov)의 스승이기도 한 소콜얀스키는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청각 장애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대학에서 장애인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였는데 오랜 시간 시청각 중복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의 시청각 장애 학생 교육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은 그의 맨 첫 학생들 8명 중 6명이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두 명의 시청각 장애 학생 중 올가 스코로호도바(Olga Skorochodova)는 소련의 헬렌 켈러(Helen Keller)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올가(Olga)는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였으며 1979년 ‘자고르스크(Zagorsk) 육아원’에 대해 동독 방송에서 촬영한 다큐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전쟁 후 소콜얀스키는 올가(Olga)에 비해 다소 덜 알려진 나머지 한 생존 학생인 니나(Nina Vinogradova)를 교육하는 데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콜얀스키의 방대한 학문적·실천적 작업들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문화역사학파의 핵심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레프 비고츠키(L. Vygotsky;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심리학자이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발달심리학 하면 떠오르는 피아제(J. Piaget) 또한 1956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콜얀스키가 니나(Nina)를 교육하는 것을 체험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까지가 시청각장애인 교육의 첫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메쉬차야코프(Mescerjakov: 1923-1974)와 철학자 일리엔코프(И'енков: 1924-1979)가 오랜 시간 자고르스크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일리엔코프(И'енков)는 이 교육

과정에 있어 이론적인 근거를 형성, 발전시킨 철학자로서 메쉬차야코프가 죽을 때까지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메쉬차야코프는 모스크바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정신지체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교육학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1955년 소콜안스키에게로 왔고 이후 소콜안스키가 죽을 때까지(1960) 시청각 장애인 관련 작업에 몰두했다.

1962년 메쉬차야코프는 어렵게 ‘자고르스크 육아원’에서 3명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196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시청각 장애인 교육 학교를 세우는 데 힘썼다. 당시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보모에 해당되는 사람들 역시 모두 박사급 연구원들이었다. 1971년 그는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에 대한 방대한 서술을 출판하였고(이 책은 1974년 영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같은 해 자고르스크에서 교육받은 네 명의 시청각 장애 학생이 모스크바 대학의 심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졸업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자고르스크에서 교육받은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시청각 장애 아동들 역시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기술, 신변 처리 능력을 습득하였으며 대부분 직업 생활로 나아갔다. 또한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이 음성언어를 구사하기도 하였다. 단, 정신지체를 동반한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의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언어교육(아울러 음성언어 교육)에서 곤란함을 겪었는데 이것은 이들의 지능이나 기타 특이점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자고르스크로 오기 전 주변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유아기를 보낸 것에 기인한다. 서두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뿐 아니라 언어 습득 과정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들도 기본적인 일상적 신변 처리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직업 생활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도 잡혀 있

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수화와 다소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화에 대해서도 정당한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촉 수화를 운운하는 것이 어찌면 너무 먼 산을 바라보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청력에 손상을 입거나 청각장애인이 시력에 손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청각 장애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영역임에 분명하다. 극단적인 소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위한 언어 복지 정책은 어찌면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영역인지 모른다.

3. 사회적 참여 그리고 공유의 윤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달리 표현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게 ‘잘’(혹은 적절히) 의지하는 것은 사회적 생존의 문제이다. 그럼 여기서 서로에게 ‘잘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인간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서로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뜻하며 이웃의 일상,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 저변에는 공유의 윤리라는 가치가 자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양식들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사회적 형태를 획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인간의 문화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변화의 복잡한 상호 관계와 함께 진화해 왔다.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의 형태는 매우 짧은 시간에 걸쳐 발달된 삶의 양식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연구에 의하면 “지구 상에서 지금까지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간의 90%는 사냥꾼과 채집자로서 살았

으며, 6%는 단순한 농경문화에서, 나머지 4%는 공업 사회에서 살았다.”라고 한다(Lee & Devore, 1968; Breger, 2003: 87). 즉 수렵 채집 문화는 농경·공업 사회의 발달로 인해 이제 사라졌지만 인류사에 있어 오랜 기간 “성공적인 적응”을 보여주었다. 인간이 오랜 진화의 산물임을 염두에 둔다면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한 이러한 적응 행동에 대한 재인식은 지금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시대로 변화하면서 인간의 문화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내가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유 문화의 소멸이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알려져 있다시피 함께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 단 여기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당시의 문화인데, 보통 우리는 이 시대가 매우 원시적이고 야만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그 역이었다고 한다. 한 번 나가서 사냥을 해 오면 그 포획물들은 서로가 충분히 나누어 먹고도 남을 만큼이었고 더불어 열매를 같이 채집도 하였으므로 이들은 먹을거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는 것이다. 남자들 여럿이 함께 사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신뢰감은 당연히 높아야 했으며 남은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를 하였다. 또 사냥은 매일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기후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여가 및 친교의 문화가 발달했었다고 한다. 즉 이 시대의 문화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즐기고 기쁘게 사귀는 매우 풍요로운 문화였다는 것이다. 특히 사냥감 배분에 있어서 함께 사냥한 것이므로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공유의 문화가 생존을 위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농경문화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공유의 윤리는 변형된다.

농경문화와 관련해서 누구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 듣거나 보았을 일상 논리를 하나 예로 들어보자. 시골에서 아이들이 서로 놀다가도 오줌이 마렵거나 응가를 하고 싶을 때는 남의 밭이나 논에 하지 말고 자기 밭이나 논에서 해결하라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제 다

거름이기 때문이다. 즉 남의 땅에 좋은 일 하지 말고 내 땅에, 우리 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농경문화에서는 이와 같이 이전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었던 영토 점유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나아가 영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동시에 곡식은 고기(사냥감)와 달리 말려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사유재산 개념도 생긴다. 추측건대 정보 공유 체계도 수렵 채집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달해 나갔을 것이다. 사냥이 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위협을 서로 알려주고 협동을 잘하려면 긴밀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니 말이다. 당시의 언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분절된 음성언어의 형식은 아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소통은 개방적이어야 했었다. 그럼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역시 그 시대의 필요에 맞도록 언어적 소통이 발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생존과 맞물린 변화·발전이었을 것이라는 점이고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역시 정보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분명 정보 공유의 문화는 바뀌어 가고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나’의 생존에 이득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의 사회적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이 어느 시대, 어떤 사회이든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문화는 자연스레 폐쇄성을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의해, 즉 강자에 대해 살아남고자 하는 약자들끼리의 소통 필요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다. 예컨대 지금 사회의 청소년들의 은어 혹은 젊은 층의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발달된 은어의 의미나 기능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언어가 기존의 성인 중심 사회의 질서를 피해 서로 간에 맘껏 소통하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도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여기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피한다는 것이 사회 비참여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참여를 원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개발하여 새로운 방식의 사회참여 형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나는 인류 역사의 갖가지 사회 제도들의 정립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제도적 배제로 인해 소외되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참여의 통로를 터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들이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고, 특히 복지 제도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어 복지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여 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에는 이런 참여의 빛깔이 얼마나 선명하게 묻어 있을까?

4. 맺는 말: ‘끼리’와 ‘함께’

우리가 자유 혹은 인권, 혹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인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지 않듯이 언어 복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증진을 못사람들에게 열심히 호소해야 할 이유이며 이는 언어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끼리’와 ‘함께’는 엇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헛갈려 하는 경우들을 본다. 겉으로는 함께하자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네끼리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경우들 말이다. 복지는 삶에 있어 기타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인데 자꾸 ‘끼리’의 냄새가 나면 정작 당사자는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 복

지 정책의 경우에 행여 이런 ‘끼리’의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은 구화(음성언어) 중심 사회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못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소리 내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정보 서비스나 집중적인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들이 걸 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말을 걸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일반인의 일상 속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언어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장애인들끼리 혹은 장애인이 언어장애 전문가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활이 언어를 만들고 언어가 또다시 새로운 생활을 만든다.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증으로 대표되는 발달장애인, 또 정신 질환을 앓는 혹은 앓았던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고단한 작업들을 누가 나서서 할 건지 항상 그게 문제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달픈 일도, 지난 한 일도 매일매일 계속, 서로가 나누어 하면 금방이다. 그렇다. 그렇게 하면 금방이다. 진짜 의미 있는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실화도 그렇게 하면 금방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소리에서 언어로, 나아가 언어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말’로서 언어의 의미가 회복되고 실현되도록 그야말로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우리 모두’가 말이다.

참고 문헌

- 가타오카 나오키(2001), 《텔레비전이 자폐아를 만든다》(김민영 옮김), 서울: 컬처클럽
- 국립특수교육원(1999), 《장애학생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도》, 안산: 교육과학사.
- 아카시 요코(2004), 《자폐인 테츠유키. 있는 그대로의 양육 1》(박재국 외 옮김), 서울: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아카시 요코(2004), 《자폐인 테츠유키. 자립을 위한 양육 2》(박재국 외 옮김), 서울: 재단법인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장 도미니크 보비(2005), 《잠수복과 나비》(양영란 옮김), 서울: 동문선.
- 정은(2002), 수화의 사회적 인정, 그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사소통권과 사회통합의 연관적 의미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3), 109-124.
- 정은(2002), Mescerjakov-Experiment를 통해 살펴 본 시청각 그리고 시청각 및 정신지체 중복 장애인의 교육적 전망, 《정서·학습장애 연구》 18(2), 225-239.
- 정은(2002),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학연구》 37(3), 75-83.
- 정은(2005), (비)의사소통적 상황에 대한 대화적 접근의 중요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279-299.
- 정은(2007), 《장애, 움직이는 시선》, 대구: 먼뚝.
- 정은(2007), 《왜 ‘특수’인가》, 대구: 먼뚝.
- 후쿠시마 사토시(1999), 《손가락 끝으로 꿈꾸는 우주인》(은미경 옮김), 서울: 중심.
- Acredolo, L. & Goodwyn, S.(2004), 《베이비 사인》(공경희 옮김), 서

울: 명진출판.

Adam, H.(1996), Unterstuetzte Kommunikation. *Z. Geistige Behinderung* 2, 122-133.

Adam, H.(2000), *Mit Gebaerden und Bildsymbolen kommunizieren* 3, unveraend. Aufl. Wuerburg: Ed. Bentheim.

Breger, L.(2003),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홍강의 & 이영식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Bronson, P. & Merryman, A.(2009), 《양육쇼크》(이주혜 옮김), 안양: 물푸레.

Edelman, G.(2009), 《세컨드 네이처》(김창대 옮김), 서울: 이음.

Goleman, D.(2006), 《SQ 사회지능》(장석훈 옮김),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Grandin, T.(2006),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홍한별 옮김), 서울: 양철북.

Haida, M, Shinohara, Y., Ito, Y., Yamamoto, T., Kawaguche, F., & Koizumi, H.(2000), Brain function of an ALS patient in complete locked-in state by using optical topography. *Search for Found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The Trans-disciplinary Symposium on the Frontier of Mind-Brain Science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Koizumi, H., ed.), 95-97, Hitachi Ltd., Tokyo.

Koguer, K., Yamashita, Y., Maki, A., Itagaki, H., Izumiyama, M., & Koizumi, H.(1997), Functional nearoinfrared pectrography(fNIR) in the neurology ward, *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 17(S1) S555.

Koizumi, H.(2000), Developing the brain: A natural science for learning and education, *The Trans-disciplinary Forum on "Developing*

- the Brain: The Science of Learning and Education*"
(Koizumi, H., ed.),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Co., Tokyo.
- Koizumi, H.(2009), 뇌 개발하기: 학습과학과 교육과학에 대한 기능영상 접근, Antonio M. Battro, Kurt W. Fischer, & Pierre J. Lena
편저(김유미 역), 마음, 뇌, 교육의 연결 고리를 찾아, 서울: 학
지사, 253-274.
- Lee, R. B., & Devore, I.(eds.)(1968), *Man the hunter*, Chicago:
Aldine-Atherton.
- Meserjakov, A. I.(2001). *Helen Keller war nicht allein: Taubblindheit
und soziale Entwicklung der menschlichen Psyche*, Berlin:
Ed. Marhold im Wiss.-Verlag Spiess.
- Sigler, R. S.(1999), 《아동사고의 발달》(박영신 옮김), 서울: 미래내
- Sacks, O.(1997), *Stumme Stimmen*, Reinbek: Rowohlt.
- Sacks, O.(2005), 《화성의 인류학자》(이은선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 Sacks, O.(2006),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조석현 옮김), 서울:
이마고.
- Spitz, R.(1972), *Eine genetische Feldtheorie der Ichbildung*,
Frankfurt/M.: Fischer.
- Spitz, R.(1976), *Vom Dialog*, Stuttgart: Ernst Klett.
- Trevarthen, D., & Aitken, K. J.(1994), Brain development, infant
communication, and empathy disorders: Intrinsic factors in
child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97-633.
- Vygotsky, L. S.(2001), Zur Frage kompensatorischer Prozesse in der
Entwicklung des geistig behinderten Kindes. In: Jantzen,
W.(Hrsg.), *Jeder Mensch kann lernen – Perspektiven einer
kulturhistorischen (Behinderten-)Paedagogik*, Neuwied;

Berlin: Luchterhand, 109-134.

Williams, D.(2005), 《도나, 세상을 향해 뛰어》(차영아 옮김), 서울: 평단.